

9 과 하나님 정부의 기초. 2024 년 6 월 1 일

일. 율법:

❖ 하늘 성소에 있는 율법.

- 요한은 환상에서 열려있는 하늘 성소와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봤습니다(계 11:19). 그 이전에는 하늘 성소의 언약궤가 숨겨져 있었을까요? 이 환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?
- 언약궤는 일년 내내 "숨겨져" 있다가 대속죄일에만 "볼" 수 있었습니다(레 16:2, 12-13). 그날 심판이 있었고 죄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(레 16:30).
- 지상에 있는 모형본과 마찬가지로 하늘 언약궤안에는 사람이 심판 할 기준이 되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. 또 언약궤에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 거룩한 은혜의 상징인 속죄소가 있습니다(벧전 1:18-19; 요일 2:2; 시 85:10).

❖ 영원한 율법.

- 비록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계명을 폐하셨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게 되지만, 종교 개혁자들이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.
-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 있는 성소와 관련된 법과 의식이 폐한 것은 사실이지만, 도덕법(엡 2:15)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.
-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고, 시간을 초월하며, 완전하며,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지적 존재들의 행동을 다스립니다(시 19:7; 119:142; 롬 7:7, 12, 16, 22, 25; 요일 3:4).
- 실제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영원합니다. (시. 89:14; 시. 119:172, 142).

이. 안식일:

❖ 안식일의 의미(중요한 이유).

- 넷째 계명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.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(출 20:8-11)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(신 5:12-15).
- 안식일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 주일 중 하루를 쉬는 시간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묵상하십시오.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삶으로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. 이런 맥락에서 안식일을 이해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입니다.
- 안식일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 줍니다.
-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표현하고, 하나님만을 예배하려는 소망을 보여줍니다.

❖ 안식일과 (세상의) 마지막 시간.

- 요한계시록 13 장에는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놓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가지 세력들이 나옵니다. 13 장의 모든 내용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(계 13:4, 8, 12, 15).
- 다니엘 7 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때와 율법을 고치려 애썼고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그의 세력을 사용하는 지 알게 됩니다(계 13:5; 단 7:25-42 개월의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같은 기간을 말함).
- 이 세력은 둘째 계명(우상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함)을 폐하고, 넷째 계명(예배의 날)을 고쳐서 거룩한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꾸었습니다.
- 이 세상) 마지막 때에 사탄은 사교 팔 자유,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명령을 바꾸어 "우상"을 예배하도록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(계 13:14-17).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토요일 대신에 사람이 정한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.

삼. 율법, 안식일 그리고 예(경)배.

❖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선포되는 세 천사의 기별은 예배와 관련이 있으며, 따라서 안식일과 하나님의 율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.

- 첫째 천사의 기별(계. 14:6-7): 심판 받을 날을 위해 준비하고(심판의 기준은 율법임)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(안식일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함)
- 둘째 천사의 기별(계. 14:8):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종교제도를 떠나라
- 셋째 천사의 기별(계. 14:9-11):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킬 지, 아니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을 지 결정하라

❖ 이 중요한 때(하나님의)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깊이 뿌리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,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야 합니다.(계. 14:12).